

## 기독교인의 종교적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연구

변영인\*

### 국문초록

죽음자체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죽어가는 모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모두 같지는 않으므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들의 성별 연령별로 종교적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 331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종교적 성향은 내재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으로 구성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는 5개 요인으로서 접근적 수용, 죽음 회피, 죽음과정의 공포, 사후세계 공포 및 중립적 수용이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첫째, 남자의 외재적 성향이 여자 보다 높으며, 여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외재적 성향이 높았으며, 내재적 성향은 매우 높으며 외재적 성향은 보통 수준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죽음과정에 대한 공포와 사후세계 공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포 수준도 높아졌다.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의 정도는 중립적 수용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접근적 수용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은 보통 수준 이하로서 죽음 과정의 공포, 죽음 회피, 사후세계 공포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40대 이하와 50대 기독교인의 내재적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나 죽음과정에 대한 공포가 감소하며, 접근적 수용은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경우 내재적 성향이 높아질수록 접근적 수용 태도도 높아지나 사후세계 공포와 죽음과정의 공포와는 상관이 없었다. 외재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전 연령의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수준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다. 또한 남녀 기독교인 모두 죽음과정의 공포와는 상관이 없었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죽음에 대한 태도와 종교적 성향과의 관계가 낮았다.

**중심단어** : 종교적 성향, 내재적, 외재적, 죽음에 대한 태도, 사후세계 공포

• 논문 투고일: 2013년 10월 20일

• 논문 수정일: 2013년 11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12일

\* 동서대학교

## I. 여는 글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Weber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ile Durkheim은 성스러운 것에 대한 체험을 종교의 핵심요소로 보고, 종교는 성스러운 것에 대한 믿음과 실천의 동일한 체계라고 정의한 바 있다.<sup>1)</sup>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인간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비단 긍정적인 측면<sup>2)</sup>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sup>3)</sup>도 적지 않아, 오랫동안 심리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 정신건강, 신체의 안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Allport와 Ross는 종교의 경험적 연구에서 외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종교를 이용하는 반면, 내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종교를 통해 산다고 하였으며, 종교성향 척도(religious orientation scale)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외재적 종교(extrinsic religion)와 내재적 종교(intrinsic religion)의

1) Emile Durkheim, *Les Formes Ele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Le Systeme Totemique en Australie*, 노치준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34-38.

2) Kerry Chamberlain and Sheryl Zika, "Religiosity,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igion and Mental Health*, ed., John F. Schumaker(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38-148; Richard M. Ryan, Scott Rigby and Kristi King, "Two Types of Religious Internalization and Relations to Religious Orientation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1993): 586-559; 한내창,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6집(2002): 157-182.

3) Paul Pruyer, "The Seamy Side of Current Religious Beliefs," *Built the Meninges Clinic* (1977): 329-348; James E. Alcock, "Religion and Rationality," in *Religion and Mental Health*, 122-131; 한내창,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60-165.

성향이라는 2개의 척도를 도출하였다.<sup>4)</sup> Ditts와 Hunt & King은 Allport의 외재적 종교정향과 내재적 종교 정향이 “종교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서술하기보다는 종교를 향한 동기에 대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종교적 성향이란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격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5)</sup>

종교를 목적으로 보느냐 혹은 수단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종교적 성향은 개인의 성향이나 동기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도 전적으로 개인에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종교적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성향이란 인간의 보편적 성격 변수이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는 사후에 대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하는 종교적 세계해명과 구원론을 믿는 신앙으로, 기독교인은 삼라만상의 창조주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인간의 타락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고,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계시를 믿으며, 하늘나라와 지옥, 성령과 악령의 역사(役事)를 믿는다. 또한 죽음과 악령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종말론)를 믿는다.<sup>6)</sup>

죽음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도서 3:2)”라고 하였다. 또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 9:27)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

4) 김동기,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183-210.

5) Mary Jo Meadow and Richard D. Kahoe, *Psychology of Religion*, 최준식 역, 『종교심리학』 (서울: 민족사, 1976), 57-89.

6) 최용운, 『세계의 종교』 (서울: 삼양미디어, 2008), 125.

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전도서 3:19).”라고 하였다. 이처럼 죽음이란 인간이나 짐승이나 생명체가 있는 것에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죽음이란 한 개인의 삶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자체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죽어가는 모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모두 같지는 않으므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sup>7)</sup> 죽음에 태도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과 죽음을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 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무섭게 생각하는 수준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죽음이라는 보편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부정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종교와 죽음 수용에 관한 선행 연구 또한 다양한 결과와 상충되는 결론이 나오며<sup>8)</sup>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요인으로는 연령(age), 성별(gender), 자아 통합감(ego integrity), 시설수용여부(institutionalization),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및 종교성(religiosity) 등이 있다.<sup>9)</sup> 죽음은 비단 노인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였으나 종교적 성향과의 관계 연구는 미흡한 실

7) 김지현·강연욱·유경·이주일,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죽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2009): 118.

8) 이기홍, “한국인의 죽음 수용과 종교”,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제10권(2009): 133-134.

9) 김지현 외 3인,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죽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117.

정이다.<sup>10)</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의 내재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이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종교적 성향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 펴는 글

### 1. 종교적 성향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다<sup>11)</sup>. 프로이드는 인간의 욕구를 죽음의 욕구와 성적 욕구로 구분하였으며, 삶과 죽음은 두 본능간의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죽음의 본능이 삶의 본능보다 더 기본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죽음을 삶의 목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Jung은 죽음의 의미를 자기실현의 의미로서 인생의 상승기를 거쳐 정상에 이르면 멈추고 자기실현이 이루어지면 이때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12)</sup>

종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으로 구분되어 지며, 사회적 기능은 정치, 경제, 가족, 교육 등과 같이 사회체계

10) 김형수 · 김지민, “노인의 종교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및 죽음태도 차이”,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 「가족과 상담」 제3권(2013):79-92; 노은숙,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성향과 성별 및 연령이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2009).

11) 정은미, “종교와 죽음 경험 유무에 따른 유아의 죽음 개념의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25-26.

12) 김준형, “중년여성의 죽음 의미 발견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석사학위논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2009), 21-22.

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 제도이다. 종교가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은 첫째, 종교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가지며 개인들을 집단 안에서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성을 맺게 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한 개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둘째, 사회통합의 기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통제의 기능으로서 종교는 사회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을 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셋째, 사회변동의 기능으로서 보수와 진보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는 관점에서 종교가 사회변형 혹은 변동에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심리적 기능은 우연성, 불확실성, 희소성이라는 인간의 한계상황에서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는 기능으로서 첫째, 긴장 해소의 기능으로서 죽음의 문제에서 생겨나는 긴장이며, 둘째, 예측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긴장으로 인간의 생존에 위협적인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한 사회 구조안의 모순에서 유래되는 상충된 가치에 직면하게 될 때 생기는 정신적 긴장을 말하며, 모순적인 가치들에 직면할 때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긴장의 해소에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고 한다.<sup>13)</sup> 종교는 이러한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고 각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결과 인간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종교성에 대한 연구는 종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종교의 소유 여부나 의례참여도와 같은 단일 차원적 종교성에서 점차 다차원적 종교성으로 발전하였으며,<sup>14)</sup> Allport와 Ross(1967)는 측정 가능한 종교성을 내재적과 외재적으

13) 한경선, “노인의 종교생활: 삶과 죽음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21-25.

14) 이원규, 『종교성과 사회계층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서울: 신학사, 1990), 485-495.

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종교성이란 종교적인 신념과 그 삶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을 말한다. 내재적 성향을 지닌 종교인은 종교적 신조를 내면화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종교는 그들의 삶과 경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타적이고,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성서나 종교관련 서적을 읽는 등 교리에 대한 지적인 관심도 보인다.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sup>15)</sup>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부적응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재적 성향 종교인은 자기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안정감과 위안, 친교와 기분전환, 사회적 지위와 자기정당화를 부여함에 유용한 것이다. 따라서 외재적 종교성향 교인들은 이기적이며, 실리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가볍게 취급함으로써 교회의 진실된 종교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sup>16)</sup>

또한 Allport는 이 두 정향이 반대되는 양극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양극 사이의 일정지점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Hunt와 King은 내재적 종교와 외재적 종교의 측정치의 상관관계는  $r=0.37$ 에서  $r=-0.54$ 까지의 범위에 있었다고 분석하였다.<sup>17)</sup> McClain은 Allport가 개발한 ROS(Religious Orientation Subscale)를 발전시켜 종교성과 비종교성으로 분류하고, 다른 성격변인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내재적 종교성향 집단이 자기통제, 개인적, 사회적 적절감,

15) 김동기, 『종교심리학』, 183-210.

16) Gordon W. Allport and Michael J.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1967): 432-433.

17) 김동기, 『종교심리학』, 193.

전형적인 여성스러움에서 유의미한 점수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Fain은 종교와 심리적 적응 변인들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내재적 종교성이 주관적 복지감 및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Hood는 내재적 종교성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이미지, 더 많은 죄책감, 낮은 자아존중감과 연관된다고 보았다.<sup>18)</sup> Ainlay와 Smith는 종교성이 크게 세 가지 하위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종교성의 행위적 혹은 공언적 측면으로 공식적 종교기관에 대한 참여여부나 참여빈도를 나타내는 조직적 혹은 공적 종교성이고, 둘째로는 종교성의 개인적 혹은 경험적 측면으로 종교경전 읽기 빈도, 기도빈도, 종교프로그램 청취빈도 등을 나타내는 비조직적 혹은 개인적 종교성이다. 세 번째 차원은 종교성의 주관적 혹은 심리적 차원으로 개인이 판단하는 자신의 주관적 종교성 혹은 종교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 또한 종교적 성향으로 개념화 된다는 것이다.<sup>19)</sup>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교성은 세 번째 차원에 관한 것이다.

## 2. 죽음에 대한 태도

기독교에서 죽음은 고난의 끝이고 부활이며, 새로운 삶을 뜻하며, 죽음이라는 사건을 인생의 종말로 보지 않고,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하나의 희망으로 보며,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를 희망의 종교라 부르며 부활의 종교라고도 한다. 종교에 헌신적인 사람들은 죽음 공포 수준이 낮다

18) Fain Benjamin, *Creation Ex Nihilo: Thoughts on Science, Divine Providence, Free Will and Faith in the Perspective of My Own Experiences*(New York: Gefen Books, 2007), 174-187.

19) Stephen C. Ainlay and D. Randall Smith, "Aging and Religious Particip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9(1998): 357-363.



고 Jeffers, Nichols와 Eisdorfer은 밝히고 있으며, Perterson과 Grei도 종교성과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인간의 삶의 주기 중 노년기에는 종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도 더욱 적으며, 인간이 종교를 가짐으로서 신에게 의지하고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인다고 한다.<sup>20)</sup> 그러나, 종교생활이 죽음의 태도에 대해 부분적인 영향만 주고 각개인의 생활형태(태도)에 따라 좌우되며, 종교적인 참여와 종교의 몰입정도에 따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만, 종교는 죽음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종교 자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죽음의 태도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는 일부 학자의 제한된 시각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sup>21)</sup>

기독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성경에서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자신의 새로운 삶 즉 사후 생명으로 이해되어지며, 신약성경에서는 죽음이란 ‘죄’로 인한 결과물로 ‘부활’에 의해 다른 몸이 된다고 하였다.<sup>22)</sup> 구약성경 시편(89:48)에서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 이까” 하여 죽음을 받아들여야 만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창세기(3:19)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의 죄로 인한 벌로서 “너는

20) 남기민 · 박현주, “노인의 종교 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49권(2010): 410-411에서 재인용.

21) 김은지, “노인의 종교정향이 죽음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17-19.

22) 안석, “죽음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기독교 상담적 활용: 노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1권(2011): 166-170.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처럼 죽음이란 인간의 잘못으로 기인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원죄에 대한 불행하고도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나름의 이해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이사야 26:19).”라고 기록 되어있다.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죽음이해의 특징은 인간을 일원론적 존재 즉, 전인적인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sup>23)</sup>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마태복음 22:32) 말씀 하시니 이것은 죽음에 대한 예수그리스도의 견해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기독교신앙에서는 죽은 이후의 생명의 자동적 연장이거나, 타계로 옮겨가서 지속되는 영혼의 불멸적 부활을 말하는 것 아니라, 죽음 속에 던져진 인간의 생명을 받으시는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에워싸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무화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살게 된다고 믿는다.<sup>24)</sup>

### 3.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350명을 대

23) 박노권, “기독교의 죽음이해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1권(2011): 28.

24) 김승혜 · 한국종교학회 편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2009), 203-220.

상으로<sup>25)</sup>,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0월 03일부터 11월15일까지이며, 장소는 각 교회 내에서 자기기입법 형식으로 응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응답을 잘못된 경우를 제외한 331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

n(%)

		남자	여자	계
기독교를 믿은 기간	10년 이내	32(29.1)	67(30.3)	99(29.9)
	11-20년 이내	19(17.3)	36(16.3)	55(16.6)
	20년 이상	59(53.6)	118(53.4)	177(53.5)
연령	40대 이하	16(14.5)	64(29.0)	80(24.2)
	50대	61(55.5)	116(52.5)	177(53.5)
	60대 이상	33(30.0)	41(18.6)	74(22.4)
계		110(100.0)	221(100.0)	331(100.0)

## 2) 연구내용 및 도구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인지 및 죽음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해석한 Ray와 Neimeyer (1984)<sup>26)</sup> 및 Feifel(1990)<sup>27)</sup>의 관점에서의 태도를 기초로 김지현 (2008)<sup>28)</sup>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척도는 Likert 5점 척도

25) 도시의 규모에 따라 지역민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부산과 경남지역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였으며, 일반적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고자 말기암환자와 같은 죽음에 직면한 연구 대상은 제외하였다.

26) John J. Ray and Najman, Jake. "Death Anxiety and Death Acceptance: A Preliminary Approach," *Omega* 5(1974): 311-315.

27) Herman Feifel, "Psychology and Death," *American Psychologist* 45(1990): 537-543.

28) 김지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140-141.

로서 ‘매우 그렇다’는 5점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을 그리고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여 태도를 산출하였다.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인자법 (principal factor method)을, 축의 회전은 직교회전(varimax)법을 사용한 결과와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죽음에 대한 태도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접근적 수용	죽음 회피	죽음과 정공포	사후세계 공포	중립적 수용
죽음이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죽음이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새롭고 영광된 삶을 기약하는 것이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 죽음은 절대 만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873 .848 .838 .830 .761 .754				
죽음에 관한 생각이 들 때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노력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고 한다. 나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생각을 피한다. 나는 죽음이 정말 두렵다. 죽음이 모든 것과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두렵다. 죽음은 분명 무서운 경험일 것이다.		.846 .823 .774 .760 .615 .591	.418		
죽음에 닥쳤을 때 겁을 심한 고통이 두렵다. 나는 암으로 인해 죽는 것이 두렵다. 나는 아주 천천히 죽어갈 것을 생각하면 두렵다.			.790 .774 .685		
나는 죽은 후에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 두렵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없을까 두렵다. 나는 죽음이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두렵다.				.811 .795 .730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측면이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죽음은 단지 삶의 과정에서의 한 부분일 뿐이다.					.871 .810 .743
Eigenvalue	4,346	3,885	2,217	2,156	2,147
% to Var.	20.69	18,501	10,557	10,266	10,224
Cum. Var.		3 39,194	49,751	60,017	70,241
Cronbach's $\alpha$	.910	.870	.810	.797	.823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하위요인의 요인점수(factor score)는 각 변수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요인점수가 0.5 이상이면 높은 적재량(factor loading)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초월성 요인에 높게 적재된 변수는 제시된 순서대로 5개가 높게 적재되었기 때문에 이들 변수로 초월성 요인 점수를 산출하였다.

종교적 성향은 Allport와 Ross(1967)<sup>29)</sup>이 개발한 ROS(Religious Orientation Scales) 20 문항, Baston & Ventis(1982)<sup>30)</sup>의 RLI(Religious Life Inventory) 27문항을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와 2개의 인자에 걸친 경우 및 요인점수가 낮은 경우를 제외한 13개 문항을 사용하여 내재적과 외재적 성향으로 구분하였다.<sup>31)</sup> Allport와 Ross(1967)의 외적척도, 내적척도, 탐색적 척도, 정통성 척도는 특정한 종교성의 세 차원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며, 외적인 척도는 수단으로써 종교를 측정할 수 있으며, 내적인 척도는 목적으로써 종교와 관련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신앙생활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Varimax 방식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고유치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구성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인점수(Factor Score)가 0.5 이하이거나 공통성(Communality)점수 0.6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29) Allport and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442-443.

30) C. D. Baston and W. L. Ventice,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31) 조칠수,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자녀양육태도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21.

(표 2) 종교적 성향에 대한 태도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내재적 성향	외재적 성향
나는 일상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851	
나는 신앙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간다.	.825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기도는 의미와 감동을 준다.	.794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741	
나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느낀다.	.739	
나는 교회와 신앙에 관한 책을 읽는다.	.733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종교적 믿음이 중요하다.	.616	
지역사회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감.		.845
교회에서 취향에 맞는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		.814
신앙과 내 생활을 별개이다.		.772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앙과 절충하는 것 필요.		.744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면, 종교는 문제되지 않는다.		.726
내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았다.		.683
Eigenvalue	4.159	3.629
% to Var.	31.991	27.913
Cum. Var.		59.904
Cronbach's $\alpha$	.881	.864

###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18.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차이분석을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개체간 효과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교적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의 결과 분석

##### 1) 종교적 성향

성별 연령별 종교적 성향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하여 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으며, 기본 가정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표 3>과 같다.

<표 3> 종교적 성향에 대한 공분산 행렬과 오차분산에 대한 동일성검증

		Box's M	F	자유도 1	자유도 2	p
공분산 동일성 검증		68.610	4.466	15	49381	.000
오차분산	내재적		.399	5	325	.849
동일성 검증	외재적		4.843	5	325	.000

<표 3>에 의하면 종교적 성향에 대한 Box의 M 검증 결과 유의수준이 0.05보다 낮게 나타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에 위배되었으나 자유도가 충분히 큰 경우라 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sup>32)</sup>. 오차분산의 경우 내재적 성향은 유의수준이 0.0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외재적 성향은  $p=.000$ 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의 오차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수 없었다.

종교적 성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과 두 독립변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종교적 성향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p
성	wilks' $\lambda$	.981	3.072	2	324	.048
연령	wilks' $\lambda$	.983	1.418	4	648	.226
성×연령	wilks' $\lambda$	.987	1.046	4	648	.383

32) 채서일 · 김선철 · 최수호,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B&M Books, 2006), 227.

성별에 따른 종속변인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3.072, p=.048$ ), 연령별로는 다변량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별 2차 상호작용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검증 결과 Wilk's  $\lambda$ 에 대한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으면 독립 변수에 따라 종속변수가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종속변수 중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간 효과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종교적 성향에 대한 개체-간 효과검증

	종속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p
성	내재적	0.710	1	0.710	1.997	0.159
	외재적	1.719	1	1.719	2.257	0.134
연령	내재적	0.348	2	0.174	0.490	0.613
	외재적	5.169	2	2.584	3.396	0.043
성X연령	내재적	0.514	2	0.257	0.723	0.486
	외재적	2.780	2	1.390	1.826	0.163
오차	내재적	115.580	325	0.356		
	외재적	247.483	325	0.761		

<표 5>에 의하면 성별로는 내재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로는 외재적 성향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396, p<.05$ ). 그러나 내재적 성향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이차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에 의한 개체-간 효과검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성별 연령별 종교적 성향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6>과 같다.



변영인 · 기독교인의 종교적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 연구 / 77

〈표 6〉 성별 연령별 종교적 성향 기술통계 (M±SD)

		내재적 성향	외재적 성향
남자	40대 이하	4.30±0.60	2.16±0.84
	50대	4.11±0.54	2.44±0.98
	60대 이상	4.22±0.57	2.39±1.10
	소계	4.17±0.56	2.38±1.00
여자	40대 이하	4.12±0.64	2.00±0.67 <sup>a</sup>
	50대	4.11±0.56	2.03±0.72 <sup>a</sup>
	60대 이상	4.06±0.71	2.44±1.14 <sup>b</sup>
	소계	4.11±0.61	2.10±0.81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a<b).

남자의 내재적 성향은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17±0.5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도 4.11±0.61로 높게 나타났다. 외재적 성향은 남자의 경우 2.38±1.00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도 2.10±0.81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내재적 성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연령별 외재적 성향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검증 결과 40대 이하와 50대 보다 60대 이상인 경우 외재적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기본 가정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표 7〉과 같다.

〈표 7〉 죽음에 대한 태도의 공분산 행렬과 오차분산에 대한 동일성검증

		Box's M	F	자유도 1	자유도 2	p
공분산 동일성 검증		121.663	1,525	75	26377	.002
오차분산 동 일성 검증	접근수용		2,391	5	325	.038
	죽음회피		2,297	5	325	.045
	죽음과정의 공포		0,757	5	325	.581
	사후세계 공포		4,895	5	325	.000
	중립수용		1,078	5	325	.372

〈표 7〉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의 공분산 행렬 동일성 가설을 위한 Box의 M 검증 결과 유의수준이 0.05보다 낮게 나타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에 위배되었으나 자유도가 충분히 큰 경우라 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오차분산의 경우 접근수용과 죽음에 대한 회피 및 사후세계 공포에 대한 유의수준이 0.05보다 높게 나타나 오차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죽음과정의 공포와 중립적 수용은 유의수준이 0.05 보다 높게 나타나 오차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죽음에 대한 태도의 다변량 검증 결과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p
성	wilks' $\lambda$	.976	1,557	5	321	.172
연령	wilks' $\lambda$	.943	1,896	10	642	.043
성×연령	wilks' $\lambda$	.951	1,618	10	642	.097

성별에 따른 종속변인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96$ ,  $p=.043$ ). 그러나 성별 연령별 2차 상호작용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독립변인들에 대하여 종속변인의 개체-간 효과 검증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죽음에 대한 태도의 개체-간 효과검증

	종속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p
성	접근수용	0.030	1	0.030	0.036	.850
	죽음회피	0.182	1	0.182	0.236	.628
	죽음과정의 공포	3.220	1	3.220	3.326	.069
	사후세계 공포	0.317	1	0.317	0.346	.557
	중립수용	0.034	1	0.034	0.041	.839
연령	접근수용	1.619	2	0.809	0.951	.388
	죽음회피	1.811	2	0.905	1.173	.311
	죽음과정의 공포	7.066	2	3.533	3.650	.049
	사후세계 공포	13.213	2	6.606	7.207	.001
	중립수용	2.418	2	1.209	1.456	.235
성 × 연령	접근수용	4.408	2	2.204	2.589	.077
	죽음회피	0.530	2	0.265	0.343	.710
	죽음과정의 공포	5.158	2	2.579	2.664	.071
	사후세계 공포	7.466	2	3.733	4.072	.018
	중립수용	0.858	2	0.429	0.516	.597
오차	접근수용	276.717	325	0.851		
	죽음회피	250.880	325	0.772		
	죽음과정의 공포	314.622	325	0.968		
	사후세계 공포	297.904	325	0.917		
	중립수용	269.938	325	0.831		

<표 9>에 의하면 성별로는 접근수용, 죽음회피, 죽음과정의 공포, 사후세계 공포, 중립적 수용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 죽음과정의 공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F=3.650, p<.05$ ), 사후세계 공포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F=7.207, p<.001$ ). 그러나 접근수용, 죽음회피, 중립적 수용은 성별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에 대한 이차 상호작용은 사후세계 공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F=4.072, p<.05$ ), 접근수용과 죽음회피 및 죽음 과정, 중립적 수용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죽음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량은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표 10> 성별 연령별 죽음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 (M±SD)

		접근수용	죽음회피	죽음 과정의 공포	사후세계 공포	중립수용
남자	40대 이하	4.01±0.71	2.41±1.02	2.44±0.88 <sup>a</sup>	1.50±0.63	3.94±0.80
	50대	3.54±1.04	2.64±0.93	2.89±1.04 <sup>b</sup>	2.29±0.99	3.61±1.08
	60대 이상	3.81±0.95	2.62±1.12	2.71±1.13 <sup>b</sup>	2.25±1.17	3.79±0.95
	소계	3.69±0.98	2.60±1.00	2.77±1.05	2.16±1.04	3.71±1.01
여자	40대 이하	3.61±1.03	2.37±0.69	2.76±0.90 <sup>a</sup>	1.89±0.94 <sup>a</sup>	3.77±0.91
	50대	3.81±0.78	2.47±0.84	2.78±0.94 <sup>ab</sup>	1.93±0.81 <sup>a</sup>	3.72±0.86
	60대 이상	3.87±0.98	2.65±0.89	3.20±1.06 <sup>b</sup>	2.46±1.21 <sup>b</sup>	3.91±0.77
	소계	3.77±0.90	2.48±0.81	2.86±0.96	2.01±0.95	3.77±0.86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a<b).

남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 수용이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3.71 \pm 1.01$ 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접근적 수용이  $3.69 \pm 0.98$ 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죽음과정의 공포가  $2.77 \pm 1.04$ , 죽음회피  $2.60 \pm 1.6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세계 공포가  $2.16 \pm 1.04$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죽음과정의 공포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 검증 결과 40대 이하 보다 50대와 60대 이상인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근적 수용, 죽음회피, 사후세계 공포, 중립적 수용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중립적 수용과 접근적 수용이 각각  $3.77 \pm 0.86$ 과  $3.77 \pm 0.9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죽음과정  $2.86 \pm 0.96$ , 죽음회

피 2.48 ± 0.81로 나타났으며 사후세계 공포는 2.01 ± 0.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죽음과정의 공포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검증 결과 40대 이하 보다 60대 이상인 경우 공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세계 공포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검증 결과 40대 이하와 50대 보다 60대 이상인 경우 공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11> 연령별 성별에 따른 내재적 종교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상관계수

		접근수용	죽음회피	죽음 과정의 공포	사후세계 공포	중립수용
40대 이하	남	.348	-.315	-.426	-.633**	.323
	여	.367**	-.324**	-.171	-.569**	.375**
50대	남	.270**	-.173	-.357**	-.418**	-.165
	여	.503**	-.313**	-.277**	-.476**	.098
60대 이상	남	.504**	.050	-.016	-.046	.425*
	여	.545**	-.170	-.195	.024	.217

\* $p < .05$  \*\* $p < .01$

<표 11>에 의하면 40대 이하 남자의 경우 내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 수준은 낮아지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 = -.633, p < .01$ ), 접근적 수용, 죽음회피, 죽음과정 공포, 중립적 수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남자의 경우 내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 수준은 낮아지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 = -.418, p < .01$ ), 죽음과정에 대한 공포 외에도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 = -.418, p < .01$ ), 접근적 수용과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18, p < .01$ ). 그러

나 죽음회피와 중립적 수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남자의 경우 내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접근적 수용 수준이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04, p<.01$ ), 중립적 수용과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25, p<.01$ ). 그러나 죽음회피, 죽음과정 공포와 사후세계 공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여자의 경우 내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 수준은 낮아지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69, p<.01$ ), 죽음회피와도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324, p<.01$ ). 또한 중립적 수용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375, p<.01$ ), 접근적 수용과도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367, p<.01$ ). 그러나 죽음과정 공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자의 경우 내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 수준은 낮아지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476, p<.01$ ), 죽음회피와도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313, p<.01$ ), 죽음과정 공포와도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77, p<.01$ ). 그러나 접근적 수용과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r=.503, p<.01$ ), 중립적 수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여자의 경우 내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접근적 수용 수준이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545, p<.01$ ), 죽음회피, 죽음과정 공포와 사후세계 및 중립적 수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연령별 성별에 따른 외재적 종교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상관계수

		접근수용	죽음회피	죽음 과정의 공포	사후세계 공포	중립수용
40대 이하	남	.159	.356	.051	.281	-.100
	여	-.325**	.324**	.056	.641**	-.256*
50대	남	-.296*	.201	.146	.468**	-.033
	여	-.377**	.346**	.178	.537**	-.236*
60대 이상	남	.231	.306	.265	.475**	.312
	여	.071	.475**	.158	.491**	-.051

\*  $p < .05$  \*\*  $p < .01$ 

〈표 12〉에 의하면 4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외재적 종교 성향과 접근적 수용, 죽음회피, 죽음과정 공포, 사후세계 공포 및 중립적 수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남자의 경우 외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 수준은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468, p<.01$ ), 접근적 수용과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96, p<.05$ ). 그러나 죽음회피와 죽음과정 공포 및 중립적 수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남자의 경우 외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 수준이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475, p<.01$ ), 접근적 수용, 죽음회피, 죽음과정 공포 및 중립적 수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여자의 경우 외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 수준은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641, p<.01$ ), 죽음회피와도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324, p<.01$ ). 또한 접근적 수용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325, p<.01$ ), 중립적 수용과도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256, p<.05$ ). 그러나 죽음과정 공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50대 여자의 경우 외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 수준은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37, p<.01$ ), 죽음회피와도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346, p<.01$ ). 그러나 외재적 성향은 접근적 수용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377, p<.01$ ), 중립적 수용과도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36, p<.05$ ). 그러나 죽음과정 공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여자의 경우 외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사후세계 공포 수준은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491, p<.01$ ), 죽음회피와도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475, p<.01$ ). 그러나 외재적 종교 성향과 접근적 수용, 죽음과정 공포 및 중립적 수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종교적 성향을 성별과 연령별로 비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 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별로 내재적 성향은 차이가 없으나 외재적 성향은 남자가 더 높으며 여자는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 외재적 성향이 더 높았다. 이는 남자 보다 여자의 외재적 성향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외재적 성향이 낮아진다는 노은숙(2009)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sup>33)</sup> 그러므로 외재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와 죽음을 삶의 일부 분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33) 노은숙,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성향과 성별 및 연령이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 미치는 영향”, 40-41.



죽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sup>34)</sup> 특히 중·장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노화와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sup>35)</sup> 죽음에 대한 공포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도 죽음과정에 대한 공포와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가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며,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는 여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다. 죽음과정에 대한 공포는 남녀 모두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성별이나 연령보다는 경제력이 높을수록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다는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sup>36)</sup>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출생에는 순서가 있으나, 죽음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자아통합을 성취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자아통합의 성취도가 큰 사람은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갈등과 불안을 줄이지만, 자아통합이 성취도가 낮은 사람은 죽음을 수용치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적이고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한다.<sup>37)</sup>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종교적 성향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성향은 사후세계나 죽음과정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며, 접근적 수용을 높여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외재적 성향은 내재적 성향과는 반대의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가톨릭

34) 김지현 · 민경환,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24권(2010): 11-27.

35) 윤기현 · 오미성 · 권혜란, “죽음의 불안과 노화과정”, 한국노년학연구회, 『한국노년학연구』 제16권(2007): 157-171.

36) 김지현 · 민경환,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20.

37) 박현규,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종교육 서비스 · 사회적 지지 · 자아통합감에 따른 태도 분석”(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9), 111-113.

릭 신자들의 내재적 성향이 높을수록 이른 죽음 및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가 유의하게 낮다는 노은숙(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up>38)</sup> 또한, 유향순(2009)의 연구에서 외재적 성향은 분노와 정적상관이, 용서와는 부적상관이 있으며, 내재적 성향은 분노나 용서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이다.<sup>39)</sup>

### III. 닫는 글

인간이란 존재는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노인심리학자인 Bromley는 “우리는 인생의 1/4은 성장하는데, 3/4은 노화하는데 소비한다.”고 하였다.<sup>40)</sup> 이처럼 인간은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누구나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보내고 늙어서 삶을 마감한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죽음의 순간이 다른 뿐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현상 이라면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필연적이고,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할 때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조금 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죽음이 생물학적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영생의 시작이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sup>41)</sup>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

38) 노은숙,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성향과 성별 및 연령이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 미치는 영향”, 62-72.

39) 유향순, “종교성향에 따른 분노와 용서 및 갈등 대처양식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2009), 118-119.

40) 김애순,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2), 2.

41) 정동섭, “죽음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노년기의 죽음을 위한 교회사역”,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26권(1999): 173-181.

이나 공포를 감소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죽음을 미리 생각하도록 하며,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2)</sup> 또한 노인들에게 영적 안녕감이 형성된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감소 될 수 있다.<sup>43)</sup> 그러나 지역적인 제한점은 있으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종교성이 있다고 모두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감소된다고 확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종교의 유무만을 고려하는 경우는 믿음이 있는 경우 노년기의 상실감이 줄어들며,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나<sup>44)</sup> 이제는 단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재적 종교 성향을 가지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직면이라는 위기 속에서 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삶과 존재의 의미를 종교 안에서 찾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야 말로 삶의 완성이자 종결로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내세에 대한 믿음과 희망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 공포로부터 심리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42) 전요섭, “효과적인 죽음 상담을 위한 죽음 이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2권(2006): 44.

43) 한경옥 · 전요섭, “노인의 영적 안녕감 형성이 죽음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318.

44) 김미경, “노년기 영성회복을 위한 성경적 모델”,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93.

## 【 참고문헌 】

- 김동기.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김미경. “노년기 영성회복을 위한 성경적 모델”.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93.
- 김승혜 · 한국종교학회 편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2009.
- 김애순.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2.
- 김은지. “노인의 종교정향이 죽음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 김준형. “중년여성의 죽음 의미 발견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2009.
- 김지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 김지현 · 강연옥 · 유경 · 이주일.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죽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2009): 118.
- 김지현 · 민경환.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24호 (2010): 11-27.
- 김형수 · 김지민. “노인의 종교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및 죽음태도 차이”.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 『가족과 상담』 제3권(2013): 79-92
- 남기민 · 박현주. “노인의 종교 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49권(2010): 410-411.
- 노은숙.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성향과 성별 및 연령이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2009.
- 박노권. “기독교의 죽음이해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1권(2011): 28.
- 박현규.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종교육 서비스 · 사회적 지지 · 자아통합감에 따른 태도 분석”.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9.

- 안 석. “죽음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기독교 상담적 활용: 노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1권(2011): 166-170.
- 유향순. “종교성향에 따른 분노와 용서 및 갈등 대처양식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2009.
- 윤가현 · 오미성 · 권혜란. “죽음의 불안과 노화과정”. 한국노년학연구회. 『한국노년학연구』 제16권(2007): 157-171.
- 이기홍. “한국인의 죽음 수용과 종교”.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제10권(2009): 133-134.
- 이원규. 『종교성과 사회계층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서울: 신학사, 1990.
- 전요섭. “효과적인 죽음 상담을 위한 죽음 이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2권(2006): 44.
- 정동섭. “죽음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노년기의 죽음을 위한 교회사역”.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26권(1999): 173-181.
- 정은미. “종교와 죽음 경험 유무에 따른 유아의 죽음 개념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조칠수.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자녀양육태도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 채서일 · 김선철 · 최수호.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B & M Books 2006.
- 최용운. 『세계의 종교』. 서울: 삼양미디어, 2008.
- 한경선. “노인의 종교생활: 삶과 죽음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 한경옥 · 전요섭. “노인의 영적 안녕감 형성이 죽음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318.
- 한내창.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6집(2002): 157-182.
- Ainlay, C. Stephen. C. and D. Randall Smith. “Aging and Religious Particip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9(1998): 357-363.
- Alcock, James E. “Religion and Rationality.” In *Religion and Mental Health*. ed. John F. Schumak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Allport, Gordon. W. and J. Michael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5(1967):

90 / 복음과 상담 • 제21권

432-443.

Baston, C. Daniel and W. L. Ventice.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Chamberlain, Kerry and Sheryl Zika. "Religiosity,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igion and Mental Health*. ed. John F. Schumak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Durkheim, Emile. *Les Formes Ele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Le Systeme Totemique en Australie*. 노치준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Fain Benjamin. *Creation Ex Nihilo: Thoughts on Science, Divine Providence, Free Will and Faith in the Perspective of My Own Experiences*. New York: Gefen Books, 2007.

Feifel, Herman. "Psychology and Death." *American Psychologist* 45(1990): 537-543.

Meadow Mary J. and Richard D. Kahoe. *Psychology of Religion*. 최준식 역. 『종교심리학』. 서울: 민족사, 1976.

Pruyer, Paul. "The Seamy Side of Current Religious Beliefs." *Built the Meninges Clinic* (1977): 329-348

Ray, J. John and Jake Najman. "Death Anxiety and Death Acceptance: A Preliminary Approach." *Omega* 5(1974): 311-315.

Ryan, M. Richard, Scott Rigby, and Kristi King. "Two Types of Religious Internalization and Relations to Religious Orientation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1993): 586-559.

## 【 Abstract 】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ian Religious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Death

**Young-In Byun**

Dongseo University

Death itself is fair to everyone, but a dying state, all about the fear of death, so unlikely to death,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attitudes. This study of the Christian religious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death by age, gender attitudes and was to study the relationship. Five factors of death attitude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death avoidance, fear for death process, fear for afterlife, neutral acceptance and approach acceptance. And two types of religious life were selected: intrinsic and extrinsic types. To this end, a survey of 331 people adults conduct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en have a tendency of women is higher than extrinsic, women,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extrinsic orientation. Second, the fear for death process and the fear for afterlife levels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Third, The higher the intrinsic propensity showed a decreasing relationship fear for afterlife, fear for death process. Conversely, the increase of extrinsic orientation relationship that these fears were increased.

Therefore, the Christians and the life of faith is not satisfied with that,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will need to have.

**Key words:** Christian religious orientation, intrinsic, extrinsic, Death's Attitude, fear for afterlife